

순천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문화·관광·산업 선도

놀이터·진료소 등 인프라 속도
새로운 ‘펫관광’ 패러다임 제시
그린바이오 ‘펫푸드’ 산업 확장

전라남도 순천시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센터·놀이터·진료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남 최초로 공공진료소가 결합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한 후 최근에는 실외 놀이터 등을 개소하며 총 3개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용객은 2023년 6100여명에서 2024년 1만명까지 약 63%가 증가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1400여마리의 유기 동물이 공공진료소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진료 대상을 유기동물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까지 넓히고 전국 최초로 일요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멍냥시민학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매개 활동인 ‘반려동물 교감캠프’를 운영하고 반려견과 산책도 하고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는 반려견 순찰 봉사단 ‘순댕이’를 발족하는 등 반려동물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펫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광객 증가 효과도 노리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며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편리한 관광을 도운 바 있는데, 해당 시설들은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반려동물과 국가정원 일대를 산책하는 시민들로부터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으로 그린아일랜드’, 더불어 댕댕나이트런,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행사도 다양하게 추진, 지난해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공식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코레일과 협력해 전남 최초로 반려견 전용 열차 여행 상품 ‘순천 댕댕트레인’을 선보였으며 이와 연계해 그간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했던 순천만국가정원에 지난 15일 하루 동안 반려동물 출입



지난 1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산책할 수 있는 ‘펫데이 이벤트’가 열렸다.

순천시 제공

을 허용하는 ‘펫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확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이 2022년 8조원에서 2032년 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순천시는 3대 경제축의 그린바이오 전략 품목 중 하나로 펫푸드 산업을 선정하는 등 반려친화 정책, 관광 콘텐츠, 체험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

고품질 펫푸드, 미용, 건강관리 등 다

양한 분야를 지역 경제의 새로운 지속가능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은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지방 중소도시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확충,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남해안권 해양·관광 마이스 포럼’
여수시, 26~27일 JCS호텔 등서

전라남도 여수시가 전남대학교,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함께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2025 남해안권 해양·관광 마이스(MICE) 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섬과 해양, 건강한 해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해양환경 전문가, 관련 단체, 전공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해양을 지키는 로컬 이니셔티브(지역 주도권)’를 주제로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국제 네트워크(연계망) 확대와 지역 특화 융복합 국제회의 모델로서의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다룰 예정이다.

26일 JCS호텔에서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기후 위기와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초 발제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도시를 위한 블루이노베이션(해양 혁신) 전략, 기후 위기와 슬로피시(Slow Fish), 국내외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문별로 전문가, 마이스(MICE) 연구자 등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대만 등 4개국 해외 연사도 참여해 국제 담론을 이끈다. 27일에는 만성리 검은모래해변에서 ‘반려해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변 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2025 남해안권 해양·관광 마이스(MICE) 도시 포럼은 여수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 ‘여수이야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 생태의 가치와 마이스(MICE) 산업이 융합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해양관광·환경 선도 도시 여수의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23일 장흥군이 낙지 자원 개체수 증가를 위해 득량만 연안에 어미 낙지 3900마리를 방류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득량만에 어미 낙지 3900마리 방류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23일 갯벌 낙지 자원 증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득량만 연안에 어미 낙지 3900마리를 방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장흥군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진행된 이번 방류는 낙지 금어

기(6월21일~7월 20일)를 맞아 실시됐다.

방류된 낙지는 육상에서 암수 합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미를 마친 후 포란된 건강한 어미 낙지 약 3900마리다.

군은 이번 방류를 통해 낙지 자원 개체

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장흥낙지’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어미 낙지 방류를 통해 ‘장흥낙지’ 브랜드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감성돔 방류 등 지속적인 자원 관리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 황금개체굴 180톤, 중국 수출길 오른다

연말까지 75만달러 수출 목표
전국 1위 개체굴 수출지 도약

전라남도 고흥군이 24일 녹동신항에서 황금개체굴의 첫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총 7톤, 2만 6000달러(한화 약 3500만원) 규모로, 중국 샤먼시에 본사를 둔 굴가공·유통 전문기업 푸젠여우이자 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현지 고급 레스토랑 식재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황금개체굴은 고흥군이 지난 2023년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하고 상표 등록 및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한 프리미엄 수산물이다. 일반 자연산 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육질이 쫄깃하며,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해 수출 효과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흥군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남해안 갯벌의 청정 해역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굴을 양식하고 있어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고흥군은 이번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는 매주 1컨테이너(7톤)

씩, 연말까지 총 180톤(약 75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수입사와 협의를 마쳤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수출은 고흥군이 국내를 넘어 세계 속 수산물 중심지로 도약하는 상징적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황금개체굴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수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중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시장을 넓혀 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

내달 12일 개장…44일간 운영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

전라남도 보성군은 오는 7월12일부터 8월24일까지 총 44일간 ‘울포솔밭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울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울포솔밭해수욕장’은 길이 약 1km의 은빛 모래사장과 50~60년생 해송 군락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과 낭만 가득한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매년 수많은 피서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해양레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 레저 활동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청정 갯벌 체험, 거리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무단 야영 및 장기방치 텐트에 대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강화해 해변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회복한 바 있다. 현재는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가 대부분 근절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 환경이 조성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방역, 편의시설 점검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름 관광지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광양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내일부터 2차 신청·접수

전라남도 광양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놓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에 진행된 1차 접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반대상자 89명과 장애인 31명이 선정돼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2차 접수에서는 총 180명을 모집하며,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희망자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5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6일 오전 10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라남도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jeonnam)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7월9일 오후 6시까지 광양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커뮤니티센터 5층)에서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이용권 카드(NH 농협채움카드)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용권을 사용해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권은 지정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관 목록은 전라남도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